

오늘의 게시판



(21일)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오전 11시 목포시 상동 양그리 아비치호텔, 민선 4기 회장·부회장 선임.

▲2006 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유도 연맹전= 오전 11시30분 목포 실내체육관, 전국에서 선수·임원 등 2천500여명 참석예정, 24일까지 4일간.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강신돈(국민대 경상대 교수)씨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

▲제 495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이성렬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강사로 '국가 발전과 정부 인사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제례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종간보고회=오전 4시 담양군청 영상회의실.

▲전남대 명예농학박사 학위수여식=오전 11시

제495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21일 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시 전남대 대학본부 5층 접견실.

<22일>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 개장식=오전 2시 목포시 총무동 외달도. 해수풀장(유·아·성인용 등 3개)·해수욕장 개장 1천500여명 참석 예정.

▲목포시 생활체육 무에타이연합회장배 대한민국 무에타이 왕중왕전=오후 5시 목포시 신흥동 평화광장.

▲가족뮤지컬 '짱구짱구'=22일(토) 오후 2·4·5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일반 1만5천원·할인권 소지자 1만원.

▲전남도립국악단 상설공연=22일(토) 오후 5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죽녹원 상설 공연=22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제 319회 진도 토요민속여행=22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항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여름이 있는 풍경'이라는 주제로, 진도 아리랑 배우가·아쟁 산조·남도 민요·단막 창극·진도 북춤·북놀이 등 공연.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백일 칠예전=25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중견 공예가 백일(전남대미술과) 교수의 칠예작품 전시.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26일까지 메트로갤러리.

▲강용상 개인전=26일까지 무등갤러리(별관).

▲대학미전=26일까지 롯데화랑.

▲의향 호남을 말한다 '미술로 만나는 악무호남전'=8월 9일까지 나인갤러리

▲대지의 숨결전=8월 10일까지 자마갤러리.

▲조선왕실의 가마전=30일까지 목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마전시.

▲원극화 미술전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생명전'=31일까지 일곡 갤러리. 백담 무천 스님 작품 전시.



뉴스퀴즈

21. 31일간 65억 지구촌을 달궜던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가 지난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리 군단'으로 불리는 이나라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레밸류 군단'을 꺾고 우승컵을 안았는데, 이번 우승으로 최다 우승(4회) 2위에 올랐으며, 유럽 대륙에서는 최다 우승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나라는 어디일까요?

- ① 이탈리아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브라질

역사속의 오늘

▲추사 김정희,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판독(1817)

▲동학 제2세 교주 최시형 처형(1898)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 태어남(1899)

▲소설가 백종만 태어남(1902)

▲소련, 발트 3국 병합(1940)

▲인도자이나 휴전협정(1954)

▲최초 주한 외국은행인 미국 체이스맨하탄 은행 한국지점 개설(1967)

▲경인고속도로 전구간 개통(1969)

▲한미통상협상, 일괄타결(1986)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이희창 대표 선출(1997)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음 6월 26일 辛亥)



36년생 일고는 있으나 볼은 멀지 않다. 48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잊지 마라. 60년생 혼자 사는 형상이니 재미가 없다. 72년생 남의 말은 경청하되 결정은 혼자 하라. 8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37년생 순종에 환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49년생 청자나 사자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61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73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85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3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리라. 50년생 재도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지 마라. 62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74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은 멀지 않아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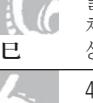
39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51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해야. 6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심물로 조심하라. 75년생 성신이 흔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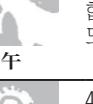
4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52년생 이웃에게 응기를 주는 말은 자신의 덕을 쓸게 되리라. 64년생 바빠운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7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운 저자의 경감을 살펴보라.



41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태울이 없으리라. 53년생 일 거수 일 부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해야. 65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주변의 이상 때문에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



42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54년생 혼자나 혼자나 협조가 미미하다. 66년생 생활의 부로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변화를 가져라. 78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43년생 불이익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지내라. 55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소로 살아난다. 67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주변의 이상 때문에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



44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니 본인의 잘못이다. 56년생 서류와 웃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68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80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45년생 기력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라. 57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69년생 순수에 환해하는 격이다. 8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46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야. 불편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하지 말라. 58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70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82년생 큰 성공의 기회를 마련된다.



47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59년생 가까운 주변인에 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1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83년생 절대 손녀사랑과 신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펴보라.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바둑 소식

진시영, 연승 최강전 6연승

진시영 2단이 최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 본선대국에서 김대희 3단과 강동원 4단을 연파하고 6연승을 거뒀다.

이로써 이번 대회 결선 진출자는 진시영 2단, 이영구 5단, 진동규 3단, 박정상 6단, 허영호 5단, 윤준상 4단, 김형우 4단 등 7명으로 확정됐다.

진시영 2단은 올해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에도 진출한 바 있는 신예 강호. 현재 30승 8패를 기록 중이며, 승률 1위 (78.9%)와 12승 6위를 마크하고 있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800만원이다. 3연승 시 100만원의 연승상금이 주어진다.

◆윤경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윤경 9단·본보 바